



한국 고용 노동부와 한국의 노사발전 재단 ...인니봉제기업 실태 파악차 방문해
KOGA와 현안 및 한국 봉제기업의 애로상등을 논의했다

한국 봉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7



한-인니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 양국관계 최상, 협력 더 강화

인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적극 지원”
 “올해 한-인니 CEPA 타결 기대...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지지”



▲ 한-인니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오른쪽)이 인도네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제3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제3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작년 9월 한국을 국민 방문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해 성사됐다.

2015년 12월 2차 회의에 이어 3년여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나라가 정상의 상호 국민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진전하기 위해 외교부뿐 아니라 많은 다른 부처가 여러 핵심영역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이달 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개최 일자(11월 25~27일)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인 전폭적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레트노 장관과 한반도 문제의 최근 전개와 상황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계속 지지해 달라고 인도네시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지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 투자·개발 사업을 비롯한 호혜적 방산협력이 계속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했으며, 해적 대응과 수색 구조 등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세를 보이는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월 협상이 재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 협

상이 올해 내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인도네시아 현지 한인 기업의 임금체불과 야반도주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밖에도 두 장관은 ▲교통·인프라 ▲과학기술 ▲산업 ▲농업 ▲영화·방송 콘텐츠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앞으로 양국 관계의 주축이 될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이자 아세안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의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레트노 장관은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한국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회담 종료 후에는 전날 생일을 맞은 강 장관을 위해 인도네시아식 깜짝 생일축하 행사를 열어주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레트노 장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 청년 250여명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행사인 ‘여성 장관과 밀레니얼 세대의 대화’에 참석했으며 이후엔 유승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립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을 차례로 예방한 뒤 귀국한다.

한국 고용 노동부와 한국의 노사발전 재단 인니봉제기업 실태 파악차 방문해

지난 3월 27일 한국 고용 노동부와 한국의 노사발전 재단이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지난번 야반도주한 브카시 소재 한인기업 SKB 불법 임금 체불과 관련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봉제업체의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방문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김영미 노무관을 비롯해 노사 발전재단 정효진 선임전문위원, 윤형수 국제협력팀장, 고용 노동부 양승준 개발협력팀장, 김송이 개발협력 지원 사무관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기업의 하재민 사장(PT.



HS), 안명호 전무(PT.SUK-WANG), 권승아 이사(PT.EINS), 강원구 법인장(PT.SGWICUS)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SKB가 있는 버카시뿐 아니라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PURWAKARTA 소재 몇몇 업체들을 방문해 실태 파악을 했다.

또한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PURWAKARTA 소재 PT.SGWICUS도 방문하고 주변 다른 봉제업체의 대표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FTA로 신남방·신북방 시장 열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한다 통상교섭본부장, 'FTA 15년' 포럼서 新FTA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수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新)남방과 신북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통상국내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확장, 혁신, 포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FTA 확장'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남방과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G2에 이은 새로운 시장들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과 양자 FTA 조속 추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FTA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또 "FTA를 우리 산업구조와 규제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를 계기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 한국이 개방형 통상정책을 통해 대내적으로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했다고 강조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면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제도 형성 과정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 신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취약계층과 피해산업을 배려하는 '포용의 FTA'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 등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돕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책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 15년 동안의 FTA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한국은 한·칠레 FTA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FTA가 발효된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관세청, 인도네시아와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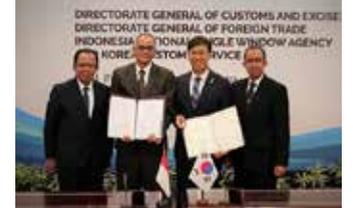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싱클윈도우 사무처장, 무역부국장, 김영문 관세청장, 헤루 팜부디 인도 관세청장(관세청 제공)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를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무부, 고정사업장(PE)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구글 등 세금 징수 강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PE)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지 언론 편집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에서 규정한 PE의 정의를 재무부는 이달 1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5호'를 통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재무장관령 '2019년 제35호'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PE를 통해 사업을 할 경우 개업 1개월 이내에 납세번호(NPWP)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 세무국의 직권으로 NPWP



를 직접 발행한다. 이 밖에 총 수입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다음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FAST, ACCURATE SERVICE UP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보드수리 완벽구비!!!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니, 여의도 8배 면적 경제특구 지정...대선용 선심 정책?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군도 지역을 경제특구(SEZ)로 지정해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신화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북부 술라웨시 주 마나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동부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은 북부 술라웨시 주 비퐁(Bitung), 북부 말루쿠 주 모로타이(Morotai), 동부 깔리만탄 주 말로이 바투타 트랜스 깔리만탄(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이하 MBTK)으로,



총 면적 2,200헥타르(약 22km²)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5배 가량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경제특구 투자자들에게는 수출품 생산 시 수출관세 철폐 및 토지 및 고용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며, 오

는 2025년까지 110조 루피아(약 8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1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성장시켜 더 이상 원자재

를 수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특구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동되는 경제특구는 총 10개소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서부 파푸아 주 소롱(Sorong)과 남부 수마트라 주 판중 아빠아빠(Tanjung Api-Api) 2개소가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저개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조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제특구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이 오는 17일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유권자는 1억 9,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선은 5년 전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과 숙적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의 재대결로 펼쳐진다.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2일 사이 전국 34개 주 남녀 1천96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제조업 부활과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려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3%로 설정했다. 그러나 재정적자와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가 조코위 대통령의 과반빛 전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월 니혼게이아이신문은 경제적인 약재들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정부의 큰 약재로 작용하면서 국정 운영과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 대신 내수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올 4월 치러질 대선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1천200억대 사기 혐의’ MBG 사건 이번 주 마무리 검찰 “추가 구속 피의자 등 10여명 기소 예정”



▲ 엠비지 그룹[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짜 정보로 1천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엠비지(MBG) 그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관계자는 9일 “MBG 그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추가 구속된 공동대표 5명을 비롯해 불구속 수사 중이던 피의자 등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임동표 MBG 그룹 회장과 이 회사 임원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따라 MBG 그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 예정인 피의자 가운데에는 종교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자사의 비상장 주식

이 상장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천131명에게 1천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했다.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 조장에 성공하자 다단계영업조직을 활용해 다수에게 주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글로벌기업 1조원 투자협약 등 여러 건의 해외투자가 성사됐다고 홍보했지만 수년간

1건의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취득했다는 광업허가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상을 만들기도 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프로덕트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며 상패 수여식까지 했지만 이런 상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홍보한 해외 사업 대부분은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가 구속 피의자와 불구속 피의자들을 기소하면 큰 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의류기기와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말까지이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18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이번달 말일까지인데 법인세 신고시 꼭 확인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등 신고내역과 결산서상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산시 원인을 찾아 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액과 손익계산서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등록 업체가 아니고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0.5% (2018년 상반기는 1%)를 납부한 PPh4(2)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겠다.

인건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등 개인용도의 지출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외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된 시점에 원천세(PPh4(2))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컨설팅, 자문료, 사용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된 시점에 원천세(PPh23/P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 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도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와 매월 세무신고된 내역과 cross check 을 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지만 세금은 회계처리상으로 수익을 잡았는데 수익에서 제외 할 것

법인세 신고시 확인 할 사항

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유보(이월시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회계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세법 규정에 맞게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익금불산입(수익에서 제외)항목으로는 PPh4(2)로 징수된 수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이미 Final Tax 로 PPh4(2)를 원천징수 당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도시 PPh4(2)로 2.5%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PPh4(2)를 매월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출 전액을 수익에서 제외하고, 비용도 전액 제외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PPh4(2)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항목으로는 소득세법 9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 또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비용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용의 효율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정률, 정액법만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때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명세서(Daftar Nominal Biaya Entertainment)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및 과태료 등도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증여, 기부금, 총당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특히 롭복, 솔라웨이 팔루 지진등 재해 성금을 지출하였다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SKB 0반도주 사건으로 퇴직급여 총당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내에 설정하는 퇴직급여 총당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재무부장관



김재훈 대표

령 규정을 충족하여 퇴직보험으로 실제 지출이 된 경우 또는 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퇴직급여 총당금을 설정을 하였다고 지출이 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과 세무조정 후 손익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법인세는 세무조정 후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선납 법인세가 있으면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납부가 되었다면 조기 환급 요건(재무부장관령 3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9/PMK/03/2018)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 된다.<끝>

학력 및 경력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도 사업, 6월에 타당성 조사 시작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 수라바야간 준고속철도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JICA)는 6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1년~1년 반 정도 소

요될 전망으로, 조사가 끝나는데로 상세 설계 착수 및 공사 입찰을 추진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일자 보도에 따르면 J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야마나카 신이

치 소장은 “비용과 국내 조달 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린다. 사용하는 차량의 스펙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JICA와 인도네시아 기술평가용 용형(BPPT)은 지난해 기존 선로

에 선로를 또 하나 추가하는 듀얼게이지 타입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철도가 개통되면 자카르타-수라바야간 소요 시간은 약 5시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 Poly Bag (LDPE, HDPE, PP, EVA)
- Garbage Bag
- PE Sheet (plain, embossed)
- Zipper Bag
- PVC Bag
- Shopping Bag
- OPP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C카드, 인니 국책은행과 디지털 결제환경 조성 지원 협약 BC카드, 인니 국책은행과 디지털 결제 관련 MOU



▲ 8일 이문환 BC카드 사장(왼쪽)과 까르티카 위르요얏모조 만디리 은행 행장(오른쪽)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만디리 은행 본사에서 QR 코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9.4.9 [BC카드 제공]

BC카드가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 만디리 은행과 손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결제 시대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BC카드와 인니 국책은행인 만디리 은행과 8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QR 코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문환 BC카드 사장과 까르티카 위르요얏모조 만디리 은행 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2014년부터 신용·직불·선불 카드 프로세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맹점 확대, 단말기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해왔다.

BC카드와 인니 국책은행인 만디리 은행과 함께 '인도네시아판 BC카드'를 론칭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QR 결제와 BC카드 간편결제 플랫폼인페이북(paybooc)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결제 시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용카드와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낮은 데다 1만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은행 계좌 보유자 비율이 2011년 20%에서 2017년 50%에 육박할 정도로 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게 이용

되는 QR 코드 결제를 이용한 계좌 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BC카드와 인니 국책은행인 만디리 은행 등 현지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프로세싱 플랫폼 사업자로써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문환 사장은 "디지털화로 결제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양한 트렌드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결제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BC카드가 보유한 디지털 결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결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부 지역 3개 경제특구 공식 출범... 조코위 대통령 선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1일 동부 지역 3곳의 경제특구의 개소를 선언했다.

해당 경제특구는 북부 술라웨시 주 비퐁(Bitung), 북부 말루쿠 주 모로타이(Morotai), 동부 칼리만탄 주 말로이 바투타 트랜스 칼리만탄(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이하 MBTK)으로, 3곳의 목표 투자 총액은 110조 루피아다. 총 12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비퐁 경제특구의 주요 산업은 야자 가공, 수산 가공, 제약, 물류로, 국제 허브항은 이미 완성됐으며 연간화물 처리 능력은 50만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가 된다. 도로 인프라는 비퐁 경제특구와 북부 술라웨시의 마나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모로타이 경제특구는 수산 가공, 관광, 물류, MBTK 경제특구는 야자 가공, 에너지, 물



리움을 각각 주요 산업으로 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동되는 경제특구는 이제 총 10개소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서부 파푸아 주 소롱(Sorong)과 남부 수마트라 주 판중 아피아피(Tanjung Api-Api) 2개소가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아리프 인도네시아 관광부장관에 따르면, 북부 술라웨시 섬의 북부 미나하사(Minahasa Utara)에 위치한 판중 빨리산-리꾸팡(Tanjung Pulisan-Likupang)에 관광 경제특구의 지정을 향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 예정 지역은 3,000헥타르로 현재는 공항에서 도로의 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니, 대통령령으로 EV 개발 부양책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EV) 개발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에 17개 항목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EV 사륜차와 이륜차 중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및 연료 전지자동차(FCV)는 적용 대상에

서 제외됐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6일자 보도에 따르면 17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납세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불완전조립생산(IKD)과 완전조립생산(CKD)의 주요 부품, 원자재 및 자재의 수입 관세 우대 조치,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을 마련했다. 충전 설비의 제조 및 수출, 금융, 연구·개발·혁신·직업 훈련 등의 분야에도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이 밖에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요금 설정 등 8개 항목이 설정됐다.

국산 EV의 목표 현지 조달 비율도 규정한다. 오토바이는 2019~2022년 말 40%, 2023~2024년 말 60%, 2025년 이후는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륜차는 2019~2020년 말 35%, 2021~2022년 말 40%, 2023~2024년 말 60%, 2025년 이후 80%로 설정됐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등 지역전문가 신입사원 공채



▲ 2019 상반기 한세실업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 포스터(한세실업 홈페이지 캡처)

한세실업과 칼라엔터치는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수출부 해외영업과 경영지원,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중미(中美) 지역

전문가다.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중미 지역 전문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업 과정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중미에서 총 7년 이상 학업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8월 졸업 예정자로 전공은 무관하다.

지원자에게는 영어권 외국대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면 유효한 영어 공인어학 성적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스페인어에 능통한 사람을 우대하며 해외 출장과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19년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019년 4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다.

지원 서류는 회사 홈페이지(www.hansae.com)를 통해 접수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수도권 인프라 정비에 10년간 571조 투입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브카시 등 자카르타 수도권의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71조 루피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로 교통 인프라 확장 비용에 투입된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바라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각 지

체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기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관료가 아니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한다”라고 말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날 유수프 칼라 부통령과의 회담 후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 확보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외 상수도망 구축, 쓰레기 처리시설 정비, 60만 가구의 주택 건설 등을 목표로 한다. 하수도망의 보급

률은 현재 14%에서 81%까지 확대한다.

재무부, 수출 VAT 면제 부문 10개로 확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일, 부가가치세(VAT) 면제 적용되는 서비스 수출 분야를 정한 재무장관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출 분야의 경쟁력 확대와 서비스 무역 수지의 개선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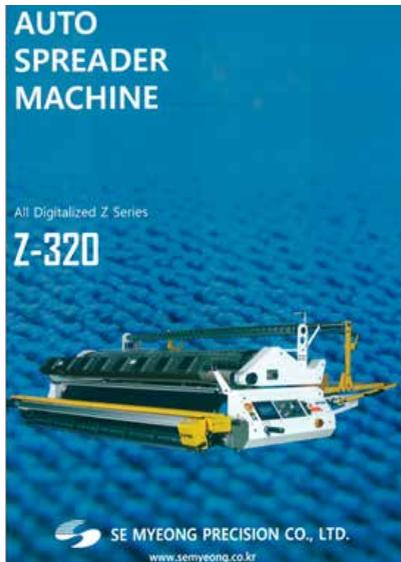
재무부는 3월 29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2호’를 제정했다. VAT 비과세 분야를 ◇외주 가공, ◇수리·정비, ◇화물 운송, ◇건설 컨

서트, ◇IT, ◇연구 개발, ◇항공기·선박 임대, ◇각종 컨설턴트, ◇무역, ◇위성 통신과 데이터간 상호연결 분야이다. 개정령 제정에 따라 기존의 재무장관령 ‘2010년 제70호’와 개정령 ‘2011년 제30호’는 폐지됐다. 기존의 재무장관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분야는 외주 가공, 수리·정비, 건설 등 3개 분야였다.

한편, VAT 면제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종



류와 내용,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와 수입자가 합의한 지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10% VAT가 부과된다.



-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yd 당중량 100그램 짜 얇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으 로자동연단
 - 봉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공장 설치사용



-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 별 LOT차에 의한 일 정하지 않은 수축율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 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온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5K,10K,20K
 - 성과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킴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템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P.T PERDANA ABADI SUKSES

세명정밀 (SEMYEONG PRECISION) INDONESIA SOLE AGENT
 퍼펙트보일러 (WINNER TEK KOREA) INDONESIA SOLE AGENT
 JL. BOULEVARD BARAT RAYA RUKO INKOPAL F53 TEL : 021 4585 9110
 설치상담 및 a/s : 085 882 701 823 lee jong chan

EMAIL : gildong27@gmail.com

섬유패션 상장 67社, 허리띠 졸라매고 불황 파고 넘었다

2018년 경영실적 호전...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
업종별 상위기업 강세현상 뚜렷하게 나타나

2018년 섬유패션 상장기업들 67개는 경영 효율에 집중하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섬유패션기업 67곳 매출(35조 756억)은 전년대비 15.0%, 영업이익(9410억)은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7개 상장기업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5.3%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화섬과 면방업종 실적이 좋았고 패션업종 기업들도 지속된 내수 불황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 67사 중 6곳이 흑자 전환했고 4곳이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13곳이었다.

■ 화섬, 발군의 실적 티케이케미칼

화섬 6사는 평균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0.3%, 116.2% 증가했다. 작년 상장이 폐지된 도레이케미칼 실적은 제외했다.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한 곳만 적자가 지속됐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양호했다. 티케이케미칼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8배나 늘어나는 발군의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규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티케이케미칼은 "이로 인해 페트칩 수유가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에서도 같은 이유로 스프레드 마진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섬유부문의 실적악화에 신음했던 면방 8사는 작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했지만 단순평균한 영업이익은 66.2% 증가했다. 동일방직은 면방업종 리딩기업 면모를 유지했다. 매출은 7.3% 늘어나 9000억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10.25% 증가한 445억원을 기록했다.

■ 면방, 반전의 희망이 보인다
2017년 실적악화에 신음했던 면방 8사는 작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했지만 단순평균한 영업이익의 73% 가저가

SG충방은 18억 적자에서 52억 흑자로 전환됐다. 매출원가율을 개선하고 판매관리비를 14억원 가량 줄인 것이 바탕이 됐다. 대한방직, 에스마크, 전방 3곳은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중 전방은 적자폭이 181억에서 87억으로 크게 줄었다. 전방은 시흥공장 매각과 광주공장 생산 중단으로 매출은 18.2% 줄었지만 치열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손실을 크게 줄였다.

■ 의류수출, '국동·SG세계물산' 흑자전환
나쁘지 않은 한해였다. 국동과 SG세계물산 2곳이 흑자로 돌아섰다. 국동은 신규 바이어를 비롯한 오더 증가로 매출이 14% 증가했다. 국동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관련 "전년도 부실채권에 대한 대규모 대손상각이 가장 큰 요인" 이라고 밝혔다.

신규 증설된 생산라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원자재 도입도 한몫 했다. SG세계물산은 의류수출부문 실적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 전년 73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의류수출부문이 14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 주요했다.

부동의 1위 기업 영원무역은 작년 9.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매출(2조1013억원)은 4.6% 증가했고 영업이익(2010억원) 역시 11.0% 증가했다. 종속회사인 SCOTT의 전기자전거(E-bike)와 Dolomite의 신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 패션, 상위 6사가 업종 영업이익의 73% 가저가

41개 기업이 포진한 패션업종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 23.2% 증가했다. 개별기업으로 눈에 띄는 실적변화는 없지만 침체된 내수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이다. 생방울 에스티오 좋은사람들 3곳이 흑자로 전환됐다. 7곳이 적자가 지속됐고 4곳(남영비비안 지엔코 토박스코리아 TBH글로벌)은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에 이어 코웰패션이 장사를 가장 잘 했다. 코웰패션은 매출 3400억원의 중견패션기업임에도 영업이익률이 전년과 비슷한 20.9%를 기록했다. 매출(9.7%)과 영업이익(14.5%) 모두 증가했다. 코웰패션은 "대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요소와 세계경기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다각화와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상위 6사(삼성물산 패션부문,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오롱인더 패션부문, 한섬, 힐라코리아, LF)는 패션업종 전체매출의 59.2%를 차지, 전년보다 비중이 1.9%포인트 올랐다. 영업이익에서는 41개 기업 중 이들 6곳이 전체의 73.3%를 점유, 이익 쏠림 현상이 크게 심화됐다. 작년보다 9.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3조원 매출을 눈앞에 둔 힐라코리아는 작년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거뒀다. 매출(2조9550억)은 16.8% 늘었고 영업이익(3571억)은 64.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이 12.1%에 달했다.

힐라USA 인수 후 리테일(Retail)에서 홀 세일(Wholesale) 방식으로 변경하고 직영점 폐점 및 인원감축, 비용절감 등 3년에 걸친 구조조정이 큰 힘을 발휘했다. 2016년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쿠쉬네트 홀딩스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도 여전히 호실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한국섬유신문

구분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이익률	순이익	증감률	이익률
면방(8)	경방(연결)	351,439	-2.6%	40,980	-3.1%	11.7%	20,189	-20.2%	5.7%
	대한방직(연결)	209,062	0.2%	-13,423	적자		15,893	흑전	7.6%
	동일방직(연결)	909,349	7.3%	44,454	102.5%	4.9%	13,625	흑전	1.5%
	*방방(연결)	141,818	-4.2%	1,871	-70.5%	1.3%	3,009	-57.0%	2.1%
	에스마크(연결)	14,218	-16.7%	-10,389	적자		-34,496	적자	
	영신방직(연결)	492,301	0.0%	29,918	24.9%	6.1%	22,339	31.1%	4.5%
	전방(연결)	149,325	-18.2%	-8,715	적자		-23,252	적자	
	SG충방(연결)	134,548	-6.1%	5,184	흑전	3.9%	3,251	829.0%	2.4%
	소계	2,402,060	0.1%	89,879	66.2%	3.7%	20,759	흑전	0.9%
	대인화섬	107,681	-2.9%	2,219	-61.4%	2.1%	44,247	116.8%	41.1%
화섬(6)	코오롱패션머티리얼	368,282	9.5%	-32,689	적자		-72,868	적자	
	태광산(연결)	3,108,762	6.6%	331,509	37.4%	10.7%	249,125	39.0%	8.0%
	티케이케미칼	789,034	10.4%	54,544	475.4%	6.9%	26,284	39.9%	3.6%
	*호성티앤씨(연결)	3,359,086	-	125,052	-	3.7%	31,498	-	0.9%
	흥배스(연결)	1,262,515	5.4%	34,359	29.4%	2.7%	18,992	-18.0%	1.5%
	소계	9,015,340	70.3%	514,984	116.2%	5.7%	299,278	61.1%	3.3%
	국동(연결)	219,550	14.6%	5,692	흑전	2.6%	2,956	흑전	1.3%
	영원무역(연결)	2,101,268	4.6%	201,038	11.0%	9.6%	111,285	17.5%	5.3%
	달리(연결)	277,697	-4.4%	3,414	-51.3%	1.2%	-6,622	적자	
	태광상(연결)	972,052	5.4%	32,530	37.3%	3.3%	10,381	4.7%	1.1%
의류수출(7)	한세상(연결)	1,712,686	0.1%	38,629	-31.7%	2.3%	-49,802	적자	
	호진상(연결)	313,272	-4.6%	10,755	-28.7%	3.4%	4,601	3.9%	1.5%
	SG세계물산(연결)	320,202	12.2%	3,938	흑전	1.2%	6,680	흑전	2.1%
	소계	5,916,727	3.1%	295,996	9.3%	5.0%	79,490	-43.3%	1.3%
	디케이엔디(연결)/감사	54,765	5.1%	3,686	-1.8%	6.7%	3,732	138.8%	6.8%
	성인(연결)	220,174	8.4%	-10,686	적자		-13,022	적자	
	알랑상(연결)	48,011	-2.2%	-8,356	적자		-6,870	적자	
	엘코(연결)	394,767	4.3%	10,101	79.7%	2.6%	6,474	흑전	1.6%
	조영미텍	127,669	-26.8%	14,978	-39.0%	11.7%	13,647	-38.0%	10.7%
	소계	790,620	-1.8%	6,037	-68.0%	0.8%	229	-80.7%	0.0%
패션(41)	남영비비안(연결)	206,139	-1.5%	-3,919	적자		-6,688	적자	
	대인	286,316	0.9%	17,900	28.9%	6.3%	14,959	10.9%	5.2%
	대인(연결)	51,621	10.2%	-6,876	적자		-10,578	적자	
	에다상(연결)	47,375	76.6%	-8,756	적자		-14,016	적자	
	해방(연결)	50,069	41.9%	6,674	17.9%	13.3%	4,393	10.0%	8.8%
	보성메디칼(연결)	107,797	-10.7%	3,353	-43.0%	3.1%	3,181	-46.9%	3.0%
	*상성물산(패션부문)	1,759,443	0.6%	25,478	-22.1%	1.4%	-	-	-
	*신성물산(연결)	821,069	-6.9%	19,384	112.1%	2.4%	7,524	-4.9%	0.9%
	신세계인터(연결)	1,262,650	14.5%	55,524	118.3%	4.4%	57,678	138.9%	4.6%
	신세계물산	141,669	-2.0%	2,921	-43.8%	2.1%	7,751	171.9%	5.5%
신세계코오롱(연결)	177,441	-6.0%	753	-87.4%	0.4%	2,709	-70.3%	1.6%	
신화(연결)	621,491	-2.9%	1,463	74.3%	0.2%	-6,341	-35.4%	-1.0%	
생방울(연결)	101,657	-7.3%	564	흑전	0.6%	-95,272	적자		
아가방(패션(연결))	112,881	-19.9%	-14,441	적자		-15,634	적자		
아티스	7,566	6.9%	921	흑전	12.2%	1,664	흑전	22.0%	
에스티오(연결)	88,322	-2.8%	537	-50.6%	0.6%	-295	적자		
엘코(연결)	119,260	-5.2%	8,045	-20.7%	6.7%	4,811	-37.7%	4.0%	
풍물산	42,671	-3.3%	-442	적자		-3,580	적자		
엔디(연결)	197,598	-1.7%	2,015	23.1%	1.0%	226	-70.4%	0.1%	
제로부세(연결)	175,282	-4.9%	-4,708	적자		-6,435	적자		
제이에스(패션(연결))	127,351	-9.0%	-856	적자		244	흑전	0.2%	
제이(에스)코팩(패션(연결))	205,634	-13.0%	4,477	-70.5%	2.2%	5,862	1.8%	2.9%	
좋은사람들(연결)	128,374	7.6%	2,532	흑전	2.0%	3,617	흑전	2.8%	
차연프(연결)	146,404	2.3%	-25,291	적자		-45,988	적자		
진도(연결)	120,088	-6.4%	7,315	-38.2%	6.1%	5,597	-41.1%	4.7%	
코대스(패션(연결))	29,343	38.2%	4,806	165.3%	16.4%	3,527	65.3%	12.0%	
크웰(패션(연결))	339,376	9.7%	71,010	14.5%	20.9%	53,351	14.3%	15.7%	
*코오롱인더(패션부문)	1,045,633	-4.7%	39,947	-17.0%	3.8%	-	-	-	
크리스에프(패션(연결))	257,887	-8.2%	43,599	-5.9%	16.9%	33,020	-0.2%	12.8%	
토박스코리아	24,372	-20.2%	-2,415	적자		-3,874	적자		
패션물산	74,307	13.9%	5,005	-4.2%	6.7%	1,211	-71.5%	1.6%	
한섬(연결)	1,299,209	5.7%	91,983	67.3%	7.1%	74,358	38.1%	5.7%	
한세상(연결)	322,990	-1.8%	2,405	-74.8%	0.7%	4,004	-46.4%	1.2%	
한지&C	108,757	-4.2%	-883	적자		-6,228	적자		
*영지엘리(연결)	166,185	-4.6%	-1,215	적자		-6,205	적자		
힐라코리아(연결)	2,954,643	16.8%	357,102	64.2%	12.1%	210,050	94.3%	7.1%	
BYC(연결)	197,864	1.0%	21,347	24.1%	10.8%	9,092	46.9%	4.6%	
F&F(연결)	668,727	19.3%	91,518	-6.7%	13.7%	109,299	45.9%	16.3%	
LF(연결)	1,706,682	6.5%	119,508	8.5%	7.0%	81,340	16.3%	4.8%	
LS(에프)텍스(연결)	445,888	0.6%	3,843	38.6%	0.9%	16,299	-20.9%	3.7%	
TBH(글로벌(연결))	208,807	20.1%	-1,172	적자		-57,649	적자		
소계	16,950,817	4.3%	940,957	23.2%	5.6%	436,983	-13.6%	2.6%	
총계	35,075,565	15.0%	1,847,853	37.3%	5.3%	836,729	8.4%	2.4%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레몬, '에어퀵' 런칭...전 세계 18개국 대리점 계약

신소재 나노멤브레인 적용 생리대 다양한 상품 전개 생산량 증설 박차

레몬(대표 김효규)은 신소재 나노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생리대 에어퀵 런칭쇼를 통해 판매촉진과 함께 생산 설비를 본격 확장에 나선다. 레몬 김효규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한 생리대 에어퀵 런칭 행사에서 “생산라인 증설로 2024년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해 국내외 나노 소재 분야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며 대대적인 사업 확장 의지를 피력했다. 특택의 자회사 나노소재 전문기업 레몬이 새롭게 출시한 숨쉬는 생리대 에어퀵은 판촉 강화에 힘입은 공급을 위해 생산 설비를 확장하며 연말경에는 IPU를 통한 투자확보에도

나선다. 레몬은 우선 올해 약 330억 원을 투자해 연 8억 개의 에어퀵 생리대를 생산할 수 있는 6개 생리대 제조 라인을 구축한다. 이후 2000억 원을 추가 투입 2024년까지 매년 6개 제조 라인을 늘려 총 36개 라인을 확보한다. 레몬은 차별화된 소재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일하게 통기성을 부여한 생리대를 출시하며, 에어퀵은 생리대뿐만 아니라 나노멤브레인을 활용한 미용 마스크와 위생 팬티 등 레몬의 대표 소비재 브랜드로 자리잡을 것을 예상했다. 나노멤브레인(Nano Membrane)은 섬유 직경이 가늘어

높은 공극(air gap)을 지닌 신소재다. 사람 머리카락의 500분의 1 정도인 100~200 나노미터 굵기, 나노섬유들을 입체적으로 쌓아 넓은 표면적의 그물망 구조를 이룬다. 공기와 수증기는 통과하고 물방울은 통과 못해 통기성과 방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의류, 환경, 의료 등 생활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에어퀵 생리대는 일반제품에 비해 85% 기공률의 나노멤브레인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2만배 이상의 통기성과 6배 이상의 투습도를 보인다. 공기가 쉽게 지나들어 냄새 없이 상쾌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준다.

또한 100% 유기농 순면 커버를 적용해 피부 자극 없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에어퀵은 지난 1일 레몬 자사몰 출시 이후 8일부터 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다.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과 면세점은 물론 해외 판매도 나선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일본, 중국 등 18개 국가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 기대를 모은다. 한국섬유신문



▲ 레몬 전속모델 배우 이하늬가 신소재를 적용한 숨쉬는 생리대 '에어퀵'을 선보이고 있다. 레몬 생리대 '에어퀵'은 생리대 처음으로 나노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PE 필름을 쓰는 일반 생리대와 달리 기존 제품 대비 2만 배 이상의 통기성과 6배 이상의 투습도를 발휘한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2019년 신제품 출시

AT 시리즈 (인버터 형/절전형)

PM(영구자석)형 스크루 압축기 AT Series를 만나보십시오.



- 기존 일반형 가격으로 인버터 구매 가능!!
 - 영구자석모터 적용 : 스크루,모터 일체형으로 기존대비 성능 8% 향상
 - 소음 감소 : 기존 대비 3% 감소
- 한신의 AT Series는 영구자석 모터(IP55) 및 인버터가 장착된 에너지 절약형 공기 압축기.
- 전력비용 30% 절감

HBH 시리즈 (소형 오일프리 5~20마력)

HBH Series는 고청정의 압축공기를 생산합니다.



- 한신의 Oilfree 스크루 압축기 HBH Series는 압축과정 중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토출되는 압축공기에 유분이 포함되지 않아 고청정의 압축공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GRH3GS 시리즈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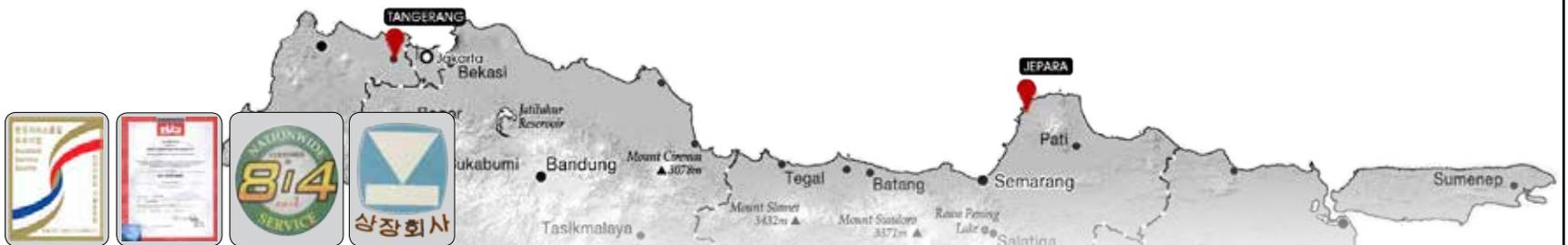
-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과 내구성이 기존제품과 동일
- 기존대비 20% 저렴



GRH 5G 시리즈 (고급형)



- Turbo Fan 사용으로 냉각기능 개선
- Can 타입 세퍼레이터 적용 → 압축공기 오일 함유량 현저히 감소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16)

믈라유 - 자와의 문화적 정서 그리고 팔렘방 역사 스케치

〈중국계 화교 초기 인도네시아 정착,인니 경제의 70% 장악의 배경〉

중국계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초기 정착, 중국의 아편 전쟁 이후의 몰락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의 본토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쫓겨 날 정도로 떠밀린 중국인들은 중국대륙의 본토를 떠나서,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의 음식문화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광산업이나 플랜테이션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장악했다고 본다. 오늘날의 두부, 뽕배, 바소, 나시고령, 미고령, 미야암, 른당 등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음식의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파워 플러스 정치적 파워에 힘이 실려 중국계 화교들의 인도네시아 정착 성공사례의 길은 하나의 표본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Melayu Jawa, Djohan Hanafiah (1995) Jakarta, PT Raja Grafindo Persada 출판사

200년의 역사 속에 팔렘방 지역에는 이미 중국의 Fukien, Kanton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다 (F.J Moorehead, A History of Malaya & her Neighbours I, Longans London 1959),고 전했다.

“History of the Ming Dynasty (1368-1643)” 저서에 의하면, 자와 지역을 중심으로 자와인이 대부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화교의 경우도 초기 팔렘방 지역에 정착을 시작했었고, 이때 수마트라 지역의 팔렘방 잠비, 리아우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자와 지역 문화의 영향은 자와외에 수마트라 팔렘방, 잠비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문화적 영향력을 보태주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와 지역 이슬람 믿음 3대 성향중의 하나인 프리야이 (Priyai)계층의 높은 정치적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인들

이 자와 지역 외의 수마트라 섬을 대상으로 무역이나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선교도 함께 병행해 왔고, 이들 문화에 대한 영향으로 아직도 수마트라 팔렘방,잠비 등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와 믈라유 발음과 언어 그리고 일부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의 종교적 법률과 율법, 이슬람 문학, 이슬람 전통의상 등 적지 않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A Malay English Dictionary (Singapore, 1903) R.J. Wilkinson” 의 사전에는 팔렘방에 대한 의미와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Pa, Pe” 접두사 의미는 “상태, 장소” 등으로 해석하고 있고, “Lembang” 의 의미는 “물 속에 오랜 잠긴 축축한 땅”, 평지가 아닌 울퉁불퉁한 토지, “Melayu” 의 의미로는 “젖은 땅, 진흙”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Palembang” 의 지역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 속 내의 의미는 “물속에 잠긴

젖은 땅”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습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1990년도 지방정부의 지리학 적 통계 조사에도 팔렘방 지역의 대부분의 지형의 토지가 거의 전체 면적의 52.24%가 물에 고인 장소, 습한 늪지대라고 전하고, 과 늪지대가 약 117개 정도이며,이외에도 크고 작은 강으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스리위자야 왕국의 경우, 엘리트 정치인 대부분의 기초 사용 용어로는 “Bahasa Melayu” 를 사용해 왔고, 그 언어는 “Palembang, Bangka”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돼 왔고, 스리위자야의 경우 “Selat Malaka” 의 영향을 또한 적지 않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와 지역의 문화적 컨셉이란? 자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주인이고,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우에도 반드시 자와 사람(Wong Jowo ,Notonogoro) 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으나,최근 몇 년 사이 하비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깨진 바 있다.

주요 포인:

“NOTONEGORO” 그동안 인도네시아 역대 대통령이 하비비 대통령 솔라웨씨 출신 외에는 모두 자와 사람이고 지금도 자와 사람들의 이름 뒤에 항상 “NOTONEGORO라고 하는 끝에 자리의 이름 즉 자와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야 하다고 이들 자와 사람들은 하나의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하비비 대통령 솔라웨씨 출신,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자와의 자신들의 신비주의와 무



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수마트라의 팔렘방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초기 정착 내 나라가 아닌 이방인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버티고 먹기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고, 초기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식음료 관련 자신들의 장점

주요 뿌리는 바로 중국계 화교들의 음식문화에서 시작 될 정도로 인도네시아 식음료 문화에 기초산업을 선점, 오늘날에 하르또노 형제의 bca 은행, 담배회사 등 인도네시아 최고의 부자 순위 1,2위 등 부의 축적은 각 분야별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이들의 경제적인 파워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다.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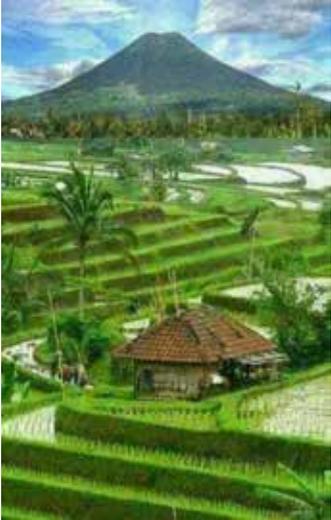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Raya Cibusr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ip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 Lee / Mr Sunardi (Mobile Phone:+62-812-128-8816/+62-813-1984-6595)



속신앙을 믿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종교를 떠나서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Soemarsaid Moertono” 씨에 의하면, 한 저서에 기록하기를 자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아직도 왕이 살고 있는 지명을 한 나라의 명칭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요 이유로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장소의 한 지명이 한 도시가 아닌 아주

넓은 의미의 한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와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명으로는 “Kediri, Singasari, Majapahit, Pajang, Demak, Surakarta, Yogyakarta “그리고 “Mataram, Bintara “등이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닌 높은 위치와 넓은 의미로서의 나라로서, 이미 역사적 기록에도 명명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의미는 “Negara (ibu Kota), Nagragung (daerah inti), Mancanegara” 등의 의미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아직도 자와 사람들의 사고에는 “NOTONEGORO” 즉 정치 지도자의 이름 뒤에 그와 같은 자와 출신의 사람들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와

출신사람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철학적 관념을 자와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내는 “Sultan Abdurahman “왕국의 노력으로 “Melayu-Jawa”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양상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부문 등 팔렘방 지역의 전반적인 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맞물리어 있는 정치적인 힘의 왕과의 적대적 관계 유지보다는 하나의 같은 동맹국으로서의 유지를 고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등 전반적으로 모두 일맥상통할 수 있는 하나가 됨에 상호 협심, 협력하자는 데, 동의 선서하게 되면서, “Melayu-Jawa” 의 오랜 역사적 의미는 이제부터 문화의 상호 화합과 융합을 통해 일치할 수 있는 이질화가 아닌 동질화의 새로운 이미지의 문화의 융합과 포용,

더 이상의 이방인이 아닌 문화적 콜라보레이션의 화모니 탄생을 울리는 신호탄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포인 :
인도네시아 종교 1,000개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UI 대학과 UIN 국립대학 이슬람문화 교수와 UIN 잠하리 문화인류학 교수의 이론)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 (Bhineka Tunggal Ika) 다종족, 다문화, 다언어 그러나 통일된 하나의 국가에 제일 많은 종족 수를 가지고 있는 자와 종족이 인도네시아 정치사의 대권

의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 등 자신들의 수치 대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종족 자와인을 신성시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에 중국계 화교들도 합류 오랜 세월 속에 물 흐르듯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자연적으로 합류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 전반 분야에 걸쳐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성공 가도를 함께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력
UN 자카르타대학 졸업
UI 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 졸업
PTK 경찰 대학원 2년과정 수료
UN 국립 이슬람 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현 국회 보좌관 / 현 UNUA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대외협력 국장
봉제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교육, 문화, 전문 강연 전도사
인적자원 네트워크 컨설팅

알리, 안선곤

美 중고의류 시장, 패스트패션 제친다

10년 내 640억불 규모 스프레드업 연차 보고서

미국에서 중고 의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세컨핸드 패션 이커머스 기업 스프레드업(ThredUp)이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고 의류 시장은 향후 5년 간 두 배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미국의 총 중고 어패럴 시장은 240억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에 5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 어패럴 시장 중 쓰리프트(Donation & Thrift) 시장은 2018년 190억 달러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2023년 2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세일 시장은 2018년 50억 달러에서 2023년 230억 달러 규모로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쓰리프트 시장은 주로 오프

라인을 중심으로, 전통적 방식의 야드 세일, 굿윌이나 구세군(Salvation Army) 등을 통한 세컨핸드 판매를 보고서에서 의미한다. 리세일은 온라인 중심으로 조금 더 큐레이트된 형식의 판매를 뜻한다. 스프레드업, 더리얼리얼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과 버팔로 익스체인지 같은 오프라인 중심 리테일러들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고 시장은 10년 내 패스트패션 시장보다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2008년 패스트패션 시장이 210억 달러 규모, 중고 어패럴 시장이 90억 달러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18년 패스트패션 시장은 350억 달러, 중고 어패럴 시장은 240억 달러 규모로 중고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28년 패스트패션 시장은 440억 달러 규모, 중고 어패

럴 시장은 640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의 성장세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GenZ) 소비자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8~24세) 소비자 중 세컨핸드 어패럴, 풋

웨어, 액세서리 등을 구입한 이는 2017년과 2019년 사이 46%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26%에서 2019년 37%로 뛰었다.

밀레니얼 세대(25~37세) 중에서는 이 시장을 이용한 이들의 비율이 2017년 21%에서 2019년 29%로 증가했다. X세대(38~55세) 중에서는

2017년 16%에서 2019년 18%로 증가했으며, 베이비부머(56~65세) 세대 중에서는 2017년 16%에서 19%로 증가했다.

스프레드업의 보고서는 리테일 분석 기업 글로벌데이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리테일러 트래킹, 퍼블릭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했다. 국제섬유신문

월간 KOGAZI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ZI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ZI(월간)

특 징

- 1) KOGAZI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 2)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 마 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ITMF’ 연차 총회 개최 세계 섬유제조업자 올림픽 내년 가을 한국서 열린다

성 회장 작년 케냐 총회서 만장일치 회장 취임 성과 전 세계 섬유 대표 기업인, 단체장 등 300여명 참가



▲ 성기학 회장

세계 섬유 생산자 대표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TMF (국제 섬유생산자연맹) 총회가 내년 가을 한국에서 열린다.

작년 9월 8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ITMF 총회에서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이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회장 임기가 2020년 10월까지인 점을 감안, 관례상 임기 2년을 마치는 시점에 회장국가에서 열리는 연차총회가 내년 가을에 열리게 된다.

ITMF는 현재 국가별 정회원 17개국과 준회원국가, 섬유관련협회, 섬유생산기업인 등을 포함해 세계 섬유생산업체에서 영향력과 비중 있는 단체장과 기업인 300여명이 가입해 활약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올해로 1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ITMF는 세계 섬유생산 분야의 영향력 있는 단체장과 기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매년 세계 섬유생산 동향과 관련 통계·정보교류·향후

전망·섬유기계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명실공히 세계 섬유생산 분야의 대표 단체다. 성 회장은 작년 9월 취임 당시 수락 연설에서 밝혔듯이 “향후 3-4년 내 중장기 액션플랜을 세워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본격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 주력 국가를 ITMF 멤버로 가입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비회원인 베트남 정부인사와 접촉해 이미 베트남이 정식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냈으며 앞으로 방글라데시도 정회원 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진다.

ITMF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지난 1992년에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서민석 동일방 회장인 98년 말부터 2002년까지 회장을 맡아 활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면방중심으로 운영돼 세계 섬유업체 지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 동안 섬유산업 전반으로 영역확대와 함께 그 위상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국제적인 대표 섬유 생산자 단체로 부상했다.

ITMF는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며 직전 회장인 케냐의 대표기업인인 자스윈더베디 회장이 아프리카를 대표해 ITMF 회장으로서 2년간 이끌어왔다.

ITMF 올해 연차 총회는 오는 9월 포르투갈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ITMF 내년 연차 총회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행사준비를 진행하게 되며 전 세계 거물 섬유기업인과 대표 단체장들이 총집결하는 섬유산업 생산자 올림픽이란 비중과 의미를 살려 이에 따른 준비위원회를 앞으로 발족시켜 치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 세계 ITMF 회원들은 한국의 섬유산업의 위축과는 별개로 영원무역이 차지하는 세계 섬유시장에서의 비중과 글로벌 기업인의 명성을 높이 평가해 성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섬유신문

4월 ‘화섬사값’ 오른다

화섬 업계 PEF 품목별 파운드당 30원씩 PTA 값 강세, 중국산 화섬사값 인상 연동

지난 1월 대비 원료값이 강세인 데다 중국의 화섬사 가격이 오르자 이에 연동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봄이 왔는데도 화섬 직물 오더는 여전히 엄동설한인 직물 업계는 오더 가뭄에 원사값이 오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산 폴리에스테르사 가격이 SDY, POY, DTY 포함해 전 품목이 파운드당 30원씩 오른다.

지난 1월에 톤당 800달러 수준이던 PTA 가격이 2월에 840달러로 올랐고 3월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MEG 가격도 1월 톤당 620달러에서 현재 640달러로 오른 데 따른 원가 부담 가중 때문이다.

특히 가격 연동 관계인 중국이 폴리에스테르사 가격을 3

월부터 일제히 올려 수입사 가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4월 가격뿐 아니라 중국의 폴리에스테르사 가격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영향으로 5월에 또다시 국산 원사값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극심한 오더 기근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대구 화섬 직물 업계와 경기 북부 니트 직물 업계는 최악의 경기 불황 상황에서 원사값마저 들먹거리자 크게 당황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 산지의 제직업체들은 내수 침장용 오더가 성수기 영향으로 가동률이 다소 호전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가동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우리소다라銀, 상업은행 등급3 위해 자본금 확충 박차

지난 2015년 출범한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이 올해 기본자본을 확충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은행의 기본자본은 4조3,0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8.3%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기본자본(Tier1) 규모에 따라 120여개 은행을 BUKU1~4로 분류한다. BUKU4에 해당하는 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고 우량하다. BUKU2에는 기본자본이 1조~5조 루피아인 은행이 속한다. 은행들이 기본자



본 5조 루피아 이상인 상업은행 등급 3에 오르기 위해 애쓰는 이유다.

우리소다라은행 측은 올해 연간 수익 성장률을 10%로 추정했을 때 내년에 상업은행 등급 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 중 BUKU3에 속하는 곳은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과 KB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부코핀은행뿐이다.

이 은행은 지난해 5,370억 루피아의 순이익을 냈고 이는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한 액수다. 올해엔 5910억 루피아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상업은행 등급 3 진입을 위한 자본금 확충방안으로 올해 주주배당금을 주지 않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소다라은행 측은 상업은행 등급 3에 진입하면 대기업들과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모기지론과 같은 개인 고객 사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부문에도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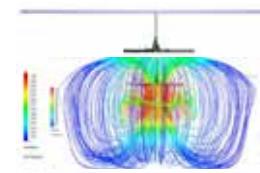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풍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장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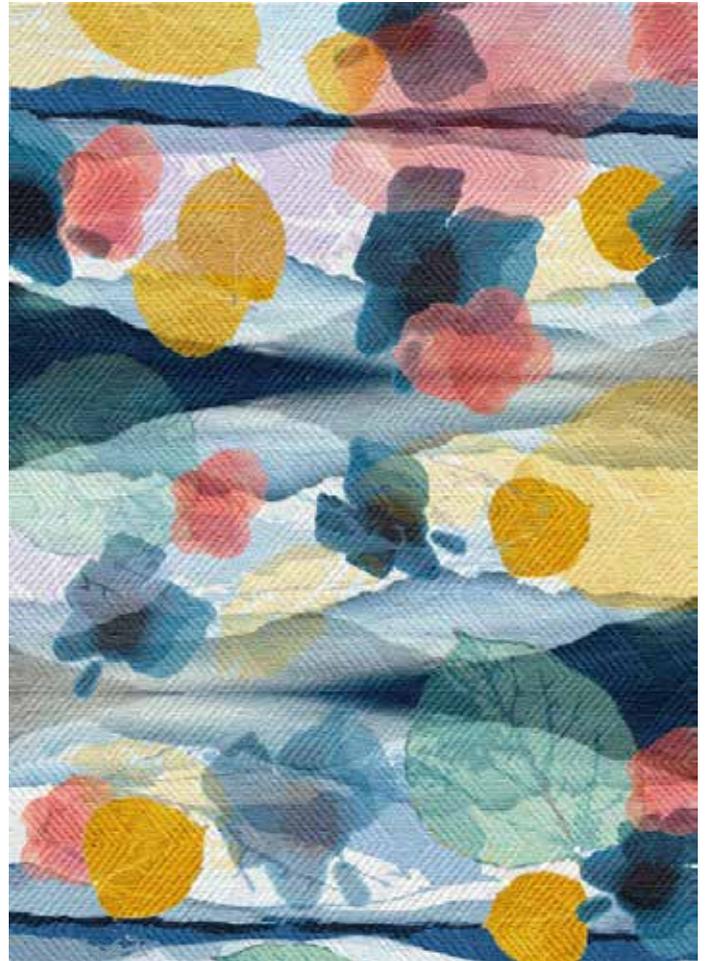
GRAND W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 스마랑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시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

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섬유신문



▲ 작품명 : 나뭇잎 꽃보라가 날리다 이지수 작

H&M, 캐시미어 사용 중단 계획

지속가능한 소싱 모색 1분기 매출 10% 증가

스웨덴 패스트패션 기업 H&M이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캐시미어 사용을 줄여 나간다.

H&M은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소싱 목표 전략 '2030 Goal'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싱되는 캐시미어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내년 말까지는 자재의 주문을 완전히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면 자재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코튼 중 95%가 리사이클 됐거나 지속가능하게 소싱된다고 한다.

면 자재 또한 오가닉 코튼, 리사이클 코튼, 친환경 단체 BCI를 통한 베타 코튼 등 내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코튼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H&M은 2030년까지 제품을 만들 때 리사이클 자재나 다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소싱된 자재만을 100%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2월 말 종료된 1분기 그룹의 순매출은 10% 증가했다. 스웨덴에서 11%, 영국에서 8%, 폴란드에서 15%, 중국에서 16%, 인도에서 42% 증가했다. 인도에서는 주요 이커머스 리테일러인 Myntra와 Jabong에서 2019년 내 H&M이 런칭될 계획이다.



▲ 작품명 : LUNAPOLICE 임예은 작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34세이

- 하해외취업성공차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 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지프(Jeep) 메가 브랜드 완성 의류에서 신발까지 공격행보

제이엔지코리아(대표 김성민)가 전 개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지프(Jeep)의 메가 브랜드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의류에서 슈즈까지 카테고리 확장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지프(Jeep)」는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캐주얼 시장에서 유니크한 브랜드 컬러를 가진 만큼 시장을 리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해왔다.

올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더욱 견고히 한 제품을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와펜 장식 야상과 전년 대비 다채로워진 디자인의 로고 플레이 아이템은 10~20대 소비자의 인기를 얻으며 판매율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극대화하면서 트렌디한 현대적 감각을 녹여 낸 「지프(Jeep)」 헤리티지 디자인 제품이 봄 시즌 매출을 견인했다. 올해 「지프(Jeep)」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견고히 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스타일리한 브랜드의 가치를 확고히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캐주얼한 무드가 강화 적용된 야상, 항공 점퍼 등 대표 상품을 구성하여 출시했다. 그 자체만으로 멋스러운 디자인의 ‘야상’과 빈티지한 위상이 돋보이는 ‘맨투맨’, ‘데님’ 아이템은 매치하

는 아이템에 구매받지 않고 손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여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이다. 특히, ‘항공 점퍼’는 현재까지 80%가 넘는 판매율을 기록했다.

‘지프’ 로고 맨투맨 전년 대비 200% 신장 지난해 패션 피플의 ‘인싸템(인사 이터+아이템)’으로 불리며 각종 후기와 인증샷으로 화제가 된 「지프(Jeep)」 로고 아이템이 새롭게 돌아왔다.

이번 시즌 로고 아이템은 1020세대를 겨냥해 스타일은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며, 오렌지, 옐로, 코랄 핑크 등 산뜻한 색감을 추가했다. 대표 스테디셀러 제품인 로고 맨투맨은 올해 더욱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전년 대비 200% 이상 신장했다.

특히, 빅 로고 아이템은 1020대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이전 세대에게는 과거의 향수로 다가가 전 연령에게 주목 받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로고 아이템의 소진을 향상에 따라 생산 물량 증량을 고려, 매출 볼륨 확장에 속도를 낸다.

지프 슈즈, ‘탱크 체로키’ 출시와 동시 ‘판매 1위’ 기록

올해 지프 슈즈(Jeep shoes) 사업부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데일리 제품으로 구성된 라이프 스타일 라인과 아웃도어 어드벤처 라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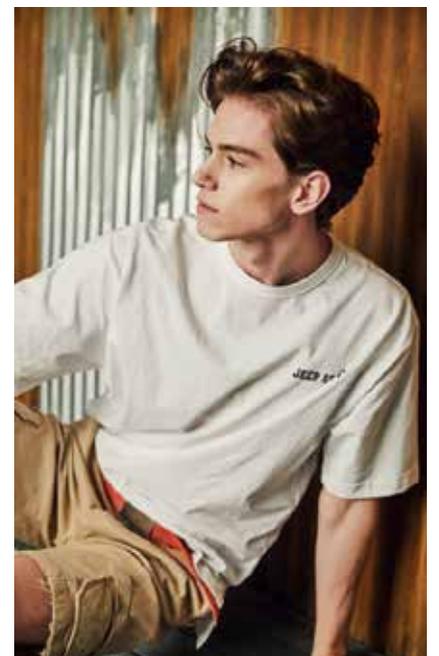


확대 구성 전개한다. 오는 4월 선보인 라이프 스타일 라인의 어글리 스니커즈 ‘탱크 체로키(TANK CHEROKEE)’는 청키한 아웃솔 디자인에 브랜드 헤리티지 로고를 적용한 제품이다.

어글리 스니커즈 열풍에 맞춰 기획된 제품으로 출시와 동시에 소비자 반응이 매우 뜨겁다.

「지프 슈즈(Jeep shoes)」는 라이프 스타일 라인과 어드벤처 라인으로 상품을 확대, 슈즈 사업에 힘을 실는다. 라이프 스타일 라인은 데일리 스니커즈 ‘컴패스(COMPASS)’와 어글리 스니커즈 ‘탱크 체로키(TANK CHEROKEE)’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으며, 어드벤처 라인은 워커 부츠 ‘윌리스(WILLYS)’로 구성되었다. 특히, 어글리 스니커즈 ‘탱크 체로키’는 출시와 동시에 무신사 스토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프 자동차 체로키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탱크 체로키’는 6cm 볼드한 오버사이즈 아웃솔 디자인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데다 착



화감도 좋아 라이트 트레킹과 산행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좀처럼 고프코어(Gorpcore) 열풍이 식지 않는 가운데, ‘탱크 체로키’가 어글리 슈즈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섬유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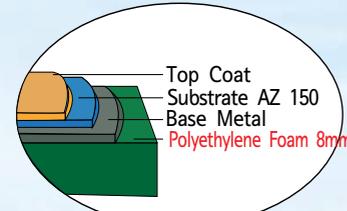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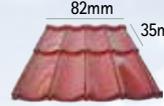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고객의 마음을
흠치겠습니다!**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로스, 올해 100개 美 매장 오픈

할인 의류 리테일러
로스 · 디디스 매장



미국의 디스카운트 의류 리테일러 로스 스토어가 2019 회계연도 내 100개 매장을 새로 오픈한다. 로스 스토어(Ross Store)는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된 2월부터 이미 28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으며, 올 회계연도 내 총 100개 새 매장을 오픈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2월과 3월 내 12개 주에 22개의 로스 드레스포레스(Ross Dress for Less) 매장들과 6개의 디디스 디스카운트(dd's DISCOUNT) 매장을 신설했다. 2019 회계연도 내 총 75개 로스 매장과 25개 디디스 디스

카운트 매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로스 드레스포레스는 미국 내 50개 주 중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고퍼에서 1502개 매장을 두고 의류와 홈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내 가장 큰 오프프라이스 의류 리테일러다. 백화점과 스페셜티 리테일러들에 비해 20~60% 할인 가격을 제공한다.

디디스 디스카운트는 18개 주에서 243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류, 액세서리 등을 20~70% 할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로스 스토어의 짐 파시오 회장은 “최근 오픈한 매장들은 기업이 펼치고 있는 기존 시장 내에서의 확장과 새 시장 진출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영한다. 이는 중서부 지역 로스(Midwest for Ross)와 디디스 디스카운트의 오클라호마 및 일리노이로의 확장을 포함한다” 고 전했다.

국제섬유신문

日 도레이, 클린룸 보호복 개발

LIVMOA 시리즈
재생의학 등 환경

일본 섬유기업 도레이가 클린룸(청정실) 환경에서 입는 새로운 보호복을 개발했다.

도레이의 새 클린룸 보호복 LIVMOA CL은 기존 LIVMOA 보호복 시리즈의 가장 최근 기술로, 높은 통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됐다. 일회용 보호복 LIVMOA CL은 재생의학이나 의약품 제조 등을 중심으로 한 클린룸 환경에서 착용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의약품을 제조하는 환경은 일회용 논우븐 더스트-프리 의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살균되고 밀폐돼, 먼지나 인체에서 나온 박테리아가 클린룸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기존 클린룸 보호복은 대부분 전체가 한 벌로 된 커버올(coverall) 타입으로, 손이나 바닥에 닿지 않게 착용하려면 까다롭고 시간도 걸린다고 한다. 또한 땀 때문에 고글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도레이는 고베 소재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Cell Therapy at the Foundation for Biomedical Research and Innovation(FBRI)’ 과의 협력을 통해 새 보호복을 개발했다.

새 보호복은 어퍼 파트와 로워 파트로 나뉘어져 있



으며, 살균 과정을 통해 기존 제품과 구분된다고 한다. LIVMOA 시리즈 중 처음으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thylene oxide gas)를 사용했다.

제품은 일본에서 올해 7월 마케팅이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니, 레이온 섬유 생산량 세계 2위로 부상 전망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에 따르면, 레이온 섬유의 일종인 비스코스 레이온의 국내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싱가포르계의 레이온 섬유 제조업체 아시아 퍼시픽 레이온(Asia Pacific Rayon, 이하 APR)은 올해 들어 리아우 뿡갈란 그린찌에 새로운 공장

을 가동,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 데일리 1일자 보도에 따르면 APR의 바스리 이사는 “새로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24만톤이다. 공장 건설에 11조 루피아를 투자했다” 라고 언급했다.

Apsyfi의 레드마 사무총장은 “APR이 새로운 공장을 가동했다. 비스코스 레이온의 국내 생산량이 인도를 웃돌 전망이다” 라며 “비스코스 레이온의 국내 수요는 연간 40만톤이다. 중국과 인도에서 매년 15만~17만톤을 수입했다” 라고 말했다.

APR에 따르면, 비스코스 레이온의 세계 수요는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연간 8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올해 9만 6,000톤의 비스코스 레이온을 터키와 파키스탄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Certification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Polyester BOA
- SOL SDF FABRIC - SOL FDF FABRIC
- SOL MICRO FABRIC - BK BOA FABRIC
- SOL BR PUB FABRIC - BOA PRINTING



Polyester EF & VEL BOA
Available in 2,5mm and various colors
Available in special finishing such as Astra, Mogul and Snail .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 광고주를 모십니다

금번 땅그랑반튼 한인회에서 땅그랑반튼에 소재하는 한인기업,업소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한인업체간 상생과 정보공유, 재난,재해 및 위급한 사태 발생시 빠른대응과 지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홍보, 그리고 땅그랑반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서 소속감 고취, 이슈와 정보에 관한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에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습니다.

금번 발행하는 디렉토리는 한인기업 모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므로 광고의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최적의 매체가 될 것입니다.

광고를 내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전화 주시면 상담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표지디자인>



2019 땅그랑,반튼 한인기업 디렉토리 사양

- 1, 약 400페이지 FULL COLOR
- 2, 발행부수 : 2000부(초판발행)
- 3, 배포: 땅그랑,반튼주내
한인기업 모두 무상배포,
인도네시아 한국 관공서, 기관외
- 4, 발행 예상일자 : 2019년 10월경

광고 문의 및 접수

전화 : 0858 9060 0962 / 0896 3033 4662
021 5579 6565
이메일 : silkroad.indonesia@yahoo.co.id
kakaotalk : silkroad2011

QR코드

